

'꽃송이버섯' 장수군 신 소득 작물로

전북농업기술원서 재배기술 전수 받아 관내 버섯농가 2개소서 재배·수확 앞뒀

장수군이 버섯 품목의 다양화와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 꽃송이버섯의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꽃송이버섯 재배기술을 전수 받아 총 예산 7,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버섯농가 2개소에서 재배를 시작했다.

시범농가는 기존 표고버섯 재배사를 활용해 단목 배야배지 3,600봉, 재배균상(3단), 초음파 가습기 등을 각각 지원받았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

가당 약 900kg의 수확량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꽃송이버섯 '너울' 품종은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 등록된 품종으로 식용 및 약용버섯 중 베타글루칸 함량이 가장 높아 기능성 버섯으로 이용된다.

또한 항암효과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kg 당 7~8만 원에 거래돼 농가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군은 지역에 표고버섯 재배 농가가 많은 만큼 기존 시설을 활용한

꽃송이버섯 재배로 농가들이 초기 시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우려와 면역력 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꽃송이버섯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유기농 인증을 통해 생협 등 판매처 확보에도 함께 꽃송이버섯이 장수군의 신 소득 작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이 금강의 발원지인 뜯봉샘 일원에 4단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금강첫물 뜯봉샘 생태관광지 조성

올해 조기완공 목표 추진

장수군이 금강의 발원지인 전북 장수군 뜯봉샘 일원에 4단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금강첫물 뜯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선정돼 2015년부터 시작해 2022년 조기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조성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해 나래울 마당 및 생태공원 진입로를 재정비하고 천연기념물 남생이의 서식지 환경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또한 자연환경해설사와 수분미를 에코메니저 등 전문가 육성을 통해 생태관광지를 홍보하고 수확여행단, 전북투어 프로그램 연계, 환경인증 프로그램을 추가 등록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체험과 농특산물 판매 등 주민 수익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발굴한다.

태영군 환경위생과장은 "전라북도 생태관광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뜯봉샘 생태관광지에서 생태를 매개로 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해 잘 사는 마을, 대표 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무주군보건의료원 직원 50명 대상 실시

무주군이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무주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의료원 직원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무주군 보건의료원 직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결방안 개발 사업' 수행기관인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오경재 교수로부터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했다.

특히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에 맞춰



농업인의 농작업과 심뇌혈관질환과의 상관관계 등 다른 직업군과의 차이성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전라북도 지역사회건강조사(2017년~2019년) 결과 분석에 따르면 무주군의 경우 진안군과 비교하면 심근경

색증 및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이 낮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 교육과 홍보에 앞서 보건의료원이 교육을 통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동훈 과장은 "무주군의 지역적 특성상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워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같은 골든타임(증상발현으로부터 적절한 치료까지 소요되는 최대시간)으로 생존 및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중요한 질환은 조기증상 발견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보건의료원이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심뇌혈관질환 관련 교육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캠페인 전개

진안군은 최근 진안고원시장 일원에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일환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을 비롯한 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새정부 들어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안전 위해요소 집중점검,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 캠페인 등 국민과 함께 진행하는 안전 추진 활동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진안고원시장을 찾

은 군민들에게 추석명절 코로나19 개인방역수칙 준수, 군민안전보험, 농기계 사용 안전수칙,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등을 홍보하고 가정용 자율점검표를 배부했다. 또한 생활 주변 안전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활용 및 안전문화운동 동참을 위한 홍보물을 나눠주며 안전한 진안 만들기에 군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국한우협회 진안군지부, 환경교육·단합대회 가져

전국한우협회 진안군지부(지부장 신재명)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1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교육 및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열 부군수, 김민규 군의장과 군의원, 전문태 도의원, 무진장축협 조합장 등이 함께했다.

환경교육에는 축사 인·허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약취관련, 별치사항 등 가축분뇨관련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전국한우협회 진안군지부에서 환경과에 직접 요청한 교육으로 한우농가들 스스로 강화되는 축산규제에

맞춰 대응하고, 군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축산농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이 끝나고 기념식 행사에서는 사료값 폭등과, 무관세 수입축산물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한우농가들에게 걱정과 위로를 담은 축사가 이어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40회 장수 군민의 장 수상자 2명 선정

장수군이 최근 제40회 장수 군민의 장 분심사위원회를 열어 2개 분야 각 1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장수 군민의 장은 1982년부터 지금까지 39회에 걸쳐 146명의 영예로운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는 애향장에 이군형(62), 효열장에 정은숙(63, 여)씨를 선정했다.

애향장 이군형씨는 2018년 국제모타리 3670지구 제48대 총재를 역임하고 2021년부터 재전장수군향우회장으로 장수군의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왔다. 2019년 1월에는 국제모타리클럽 3670지구 총재 재임 시 새해를 맞아 장수모타리클럽, 대구 태양모타리클럽과 함께 장수군 노인장 애인복지관에서 사랑의 자정면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어르신 및 장애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다과 나눔 활동, 설 명절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원 및 마스크 2만장 기탁 등 고향 사랑 정성을 몸소 실천했다.

효열장 정은숙씨는 장수군 계남면 평



애향장 이군형 효열장 정은숙

지마을에서 30여년간 103세인 시모를 봉양하며 극진한 효를 행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두명의 자녀를 키우며 시모까지 모시는 등 효심이 깊다. 평소 노인애에 대한 공경심을 몸소 실천하고 온화한 심성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아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이러한 공적으로 2021년 8월 계남향약 효부상 수상 및 2022년 6월 제32회 계남면민의 장(효열장)을 수상한 바 있다.

장수군은 오는 28일 제50회 장수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장수 군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청취

무주군은 10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토지 1,6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무주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사유가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열람 및 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누리집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를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민원봉사와 토지관리팀 객관체담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제,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역 과태료 최대 7.5배 상향

장수군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역(미시시)에 따른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밝혔다.

검사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부과되며, 31일 이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4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최대 7.5배 인상돼 건설기계 소유자와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